

#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올해 연말까지 시설 기능개선 추진

## 13년만에 85억 투입...새 야간 관광명소 재탄생

### 업그레이드 통해 더 화려·웅장한 분수공연 기대

목포시가 바다분수 시설 기능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평화광장에 설치된 춤추는 바다분수는 세계 최초의 부유식 분수로 지난 2010년 설치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과 감동을 선사해왔다.

목포시는 바다분수 설치 이후 13년만에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시설 기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시설개선은 오는 12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춤추는 바다분수가 시설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부품 수급 곤란 등 운영

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바다에 설치된 분수의 특성상 염분에 의한 부식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수년 전부터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목포가 지난 2020년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광 기반시설 정비, 스마트 관광 환경 조성사업,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장기 계획에 따라 관광사업 발

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춤추는 바다분수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기존 바다분수 시설 전반에 대한 외관조사와 내구성조사 등 전반적인 상태 평가를 시행한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입찰공고를 걸쳐 전문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다이내믹한 연출을 위한 분수설비 교체 및 보강, 다양한 조명, 노후 기계·전기 설비

교체, 부력체(선체) 내구성 강화, 화질 개선을 위한 장비(레이저, 빔프로젝터)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대적으로 분수 시설에 대한 탈바꿈을 시도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바다분수 기능개선으로 공연 체험성 극대화 및 스토리 최적화를 통해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목포의 대표 관광 명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신안 퍼플섬, 라벤더꽃 축제장으로 오세요”

### 전국 최대규모의 프렌치라벤더 정원의 보랏빛 향기 가득



싱그러운 5월 퍼플섬에서는 보라꽃의 대명사 라벤더 축제가 오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축제는 라벤더정원이 조성되고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퍼플섬 바지도에

35,000㎡ 면적에 프렌치 라벤더 정원을 조성했으며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농특산물판매, 맛있는 브랜드제품 홍보, 버스킹공연, 라벤더 머리화환 및 부케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이 준비될 예정이다.

퍼플섬은 UNWTO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곳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에서 공동으로 '2023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곳으로 이미 입소문이 나서 가족, 연인, 모임에서 보라색 옷을 맞춰 입고 퍼플섬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유행이 되었으며, 2021년 8월 13일 퍼플섬 선포식 이후 7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보라색 섬지 퍼플섬에서는 계절의 여왕 5월 라벤더꽃 축제를 시작으로 6월 벼들마편초 꽃축제, 9월 아스타 꽃축제 등 철 따라 꽃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라벤더정원에서 보라꽃향기로 치유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퍼플섬은 사계절 보라꽃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퍼플섬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보라색 옷을 입고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안전체험교육 실시

무안군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30여 명이 참여해 지진과 화재 안전에 대해 안전수칙교육을 실시하고 △지진 VR 체험 △붕괴 대피 체험 △생존 가방 꾸리기 △피난기구 체험

△영화관 대피 체험 △소화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최기후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안전 의식과 재난·안전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태풍·폭염 등 다가올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복구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광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 위한 방문복지 업무담당

### 33명 직무 역량강화 교육

영광군은 지난 21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방문복지 업무담당자 33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지자체 순회교육”을 신청하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변화에 따른 시스템 처리와 사례관리 및 자원관리 활용 방법, 통합돌봄서비스 업무추진 안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읍면과 군 업무담당자들의 상호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자의 전문적인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좀더 쉽게” 영암군, 영암사랑카드 구매처 확대

### 오늘부터 광주은행에서도 발급

26일부터는 광주은행 영암지점에서도 영암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은 지난 19일, 광주은행 영암지점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영암에서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만 지역화폐(영암사랑카드)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영암사랑카드가 골목 상권 활성화와 지역 가계 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발행처 확대 운영을 통해 카드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상품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사랑카드는 21년 7월 출시 이후 22년도에는 270억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성장리에 운영중이다.

영암=조대호기자

## 함평군, 고추 정식기 저온 피해 예방 당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노지고추 정식에 앞서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지 정식을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노지고추는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를 실시해 정식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함평군의 경우 지난해 5월 3일 최저기온이 1.8℃까지 내려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올해는 안전 정식을 위해선 5월 5일 이후 정식을 해야 한다.

고추 정식 전 시비량은 품종, 토양비옥도, 재식주수, 전작물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

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토양검정을 실시해 시비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랑 너비는 폭을 90~120cm, 높이는 20cm 정도로 만들어 주면 병해 발생 감소와 수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

비닐 멀칭은 정식하기 3~4일 전 또는 이랑을 만든 직후에 실시해 지온을 상승시켜 주면 뿌리 활착에 좋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